

7. 27 이 전하는 사랑의 전설

조선에서의 조국해방전쟁(1950. 6. 25-1953. 7. 27)은 세계전쟁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렬치절한 전쟁이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세계가 우려하던 제국주의자들과의 준엄한 대결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영웅조선의 기상을 온 누리에 떨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거대한 승리는 세상을 놀래운 기적중의 기적이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지략과 전략전술이 낳은 승리인 동시에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이 낳은 빛나는 승리였다.

화선휴양소

1211 고지일대에서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달려드는 적들과의 치렬한 전투로 날이 저물고 날이 밝던 어느날이었다.

전선에 나갔다 돌아온 한 지휘관으로부터 일부 전투원들속에서 야맹증환자가 생겼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하는 어려운 때이지만 전사들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하시면서 빨리 화선에 휴양소를 만들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그 어느 전쟁사에도 불비 쏟아지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 전사들을 위해 화선휴양소까지 마련한 사실은 없었다.

화선휴양소는 전투원 한사람, 한사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보배들이며 혁명전우들이라고 하시면서 친아버이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는 행복의 보금자리였다.

전선에서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고있는 준엄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시는 친아버이의 사랑은 그대로 인민군군인들이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게 한 원동력으로, 전쟁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되였다.